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친구일론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회개와 친구가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4:17

주간충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창간호 39호 충현교회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2006 충현교회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김경선 편집인:노광원 편집:양재웅

십자가를 통한 성령의 역사,

7000명의 선교사에서 7000개의 현지인 교회로!

“이 복음이... 온 천하에서로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골 1:6)



주님의 은총은 충현의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십자가를 깊이 새기게 하였습니다(갈 5:24).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로 하나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 지기를 주저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98년부터 시작된 선교는 800여팀 7770여명의 단기 선교사 파송이라는 은혜를 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는 현재 여러 곳에서 아주 구체적인 은총의 열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롬 7:4). 무엇보다도 선교지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십자가를 통한 성령의 역사로 풍성히 넘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훈련(F.M.T.C.)을 받고 본국으로 돌아간 현지인들이 교회를 세워서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A국의 경우 예배 장소가 협소하여 더 넓은 복음의 공간을 위해서 기도하던 중 한 성도의 지명헌금으로 그토록 기도하였던 예배당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은총의 열매는 복음을 깨달은 안수 집사님들과 3교구의 권사님 및 성도님들의 헌금으로 곧 B국에서도 예배당을 마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외에도 C국, D국 등에 파송된 현지인 사역자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역시 이곳도 많은 영혼들이 찾아와 더 넓은 처소를 마련해야 할 상황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돌아볼 때 주님의 은총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요 1:16). 그 만큼 모든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가 더욱 필요합니다(빌 4:6). 또한 현재 더 넓은 예배 장소가 필요한 현지인 교회들을 위해서 앞으로 더욱 많은 관직과 참여가 요청되고 있습니다(마 7:16). 성령의 역사는 주님이 오실 그 날까지 계속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 교회에 7000개의 현지인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일에 방관자가 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동참할길 원합니다(행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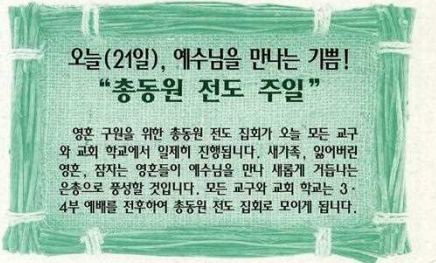
개어, 이 말씀을 들으라!(골로5:1)

그리스도의 영광

7. 그리스도의 초창을 통한 그리스도의 영광② (마 11:28)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얼마나 친절한 사랑의 음성인가! 이 초창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기뻐하지 않을 수 없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의 말씀에서 매우 지쳐버린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어린이들이 새벽부터 학교와 학원, 과외로 뛰어 다니고 있으며 직장에서는 명예직을 요구하고 사업의 부도, 가족의 불화 등 인간에게 찾아오고 있는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종교, 도덕 등의 문제로 인해 우리의 삶은 타지러한다. 한결같이 다 내딛을 수 없는 공포와 두려움이다. 엄청난 책임과 의무로 쌓였으며 내적, 외적으로 우리의 삶은 무기력해져 버렸다. 그런데 사랑의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그리스도 우리가 믿음으로 의탁다 하심을 얻은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라”라고 말씀하신다. 왜 피곤해졌으며 왜 압박을 당하는지를 말씀하시지 않는다. 그것은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으며 이 초대는 인간 모두에게 열려진 초대인 것이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주께로 나오는 자에게는 엄청난 보람이 있다고 말씀하신다. 초창의 요점이 무엇인가! “Salvation(구원)” 그리고 “Rest(쉬)”이다. “내게로 오라, 쉬게 하리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요 6:35). 죄 많고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쉬게 해 주신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외에 어느 누가 죄로 물든 영혼들에게 쉼을 줄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의 도사라고 끊임없는 부패와 타락에 빠진 이 세상의 폭군들, 해어릴 수 없는 무거운 짐과 슬픔과 스트레스, 죄로 인한 이 모든 것들로 인해 지친 영혼들에게 쉼을 줄 수 있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7:24) 알았도 우리에게는 인생의 마지막을 고대할 날이 다가 온다. 기적도 체력도 정신력도 모두 온전하고 피곤에 지친 질식 상태일 것이다. 그때에 우리는 쉼표를 찾아가며 흥미로움도 느끼게 된다. 그러나 또 다른 수고를 우리에게 요구한다(마 23:4). 우리 각자의 삶을 볼 때 문제가 있는 사람은 찾기가 힘들다. 아니 불가능하다. 그런데 우리에게 단순한 사랑의 음성이 들려고 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이, 인종, 빈부, 학벌, 어떠한 짐을 지고



교역자 · 장로 · 안수집사 · 권사 기도회 금주 화요일(23일), 저녁 7:30 갈릴릴홀

기도는 주님과 나누는 영적인 교제이며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중심에는 주님이 계시어 합니다(마 6:9). 인생의 축복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기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하신단 중직자들의 기도회가 금주 화요일(23일) 갈릴릴 홀에서 있습니다. 이 기도회를 통해서 교역자 · 장로 · 안수집사 · 권사님들이 진심으로 회개하며 자신의 전부를 예수님께 드리는 은총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교역자 · 장로 · 안수집사 · 권사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골 4:2).

있든지 간에 상관이 없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확실하고 분명하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여 주신다. 이러한 말씀을, 아니 이와 비슷한 말씀을 들어 본 적이 있는가! 하나님 외에 다른 누가 감히 이러한 말씀을 할 수 있단 말인가!(사 55:1-3, 45:22)

왜 그리스도께로 가야하는가! 그 이유는 단순하다. 그리스도도 쉼을 주시기 때문이다(히 4:7-9, 13). 이것이 중요한 진리이며 사실이며 참 종교인 것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선지자 이사야의 입을 통하여 부르시는 초창과 은총의 말씀이기도 하시다(45:24). 다윗도 역시 그분을 찬양한다(시 116:7). 구원과 공의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사 1:18; 계 22:17). 예수께서 이 초창을 하실 때에 그저 단순하게 하나님의 속성을 두고 책임 없이 부르짖어 오지 않는다. 하나님이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이 죄인들의 죄를 눈 감아 주시며 쉼을 주는 것이 결코 아니다(히 9:22).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에는 대가가 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엄청난 초창의 말씀, 곧 중보자의 역할, 중보자의 속성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천하에 있는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주 만물을 받을 수 없고, 또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다(마 11:27). 결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주님께 주어진 신적인 영광을 간접적으로 나타내 주고 있다.

이제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내게로 오라”고 부르신다. 이 말씀을 끝내기 전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은총을 받아들이기 때, 이 말씀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 것이다. 우리를 위한 은혜에만 너무나 집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초창하시는 그분의 영광스러움을 놓치고 마는 것이다(사 43:1; 계 14:13; 뱀전 5:7).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적인 영광을 깨달을 때에 그분의 초창, 은혜의 초창의 위대함을 더 깊이 알 수 있다. 우리에게 있어 단순한 동정과 사랑은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반면 무한한 동정을 띤 진리임으로도 우리의 영혼은 해결 받지 못한 채 죄책감에 빠져 지옥으로 떨어진다. 그러나 우리는 구세주이신 만군의 하나님, 우리와 같이 뼈와 살을 가지신 그분, 위엄과 사랑을 함께 가지신 그분, 능력이 있는가 하면 무드름이 있어 영광과 은혜가 있으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가 되시기에 그분께만 나아가면 쉼을 얻는다. 아버지로부터 이 모든 것을 받으신 그분이 우리들을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초창해 주시고 계신 것이다(마 14:27).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요 16:33).

TRIUMPH OF ZACCHEUS

⁽¹⁾And He entered and was passing through Jericho. ⁽²⁾And behold, there was a man called by the name of Zaccheus; and he was a chief tax-gatherer, and he was rich. ... ⁽⁸⁾And Zaccheus stopped and said to the Lord, "Behold, Lord, half of my possessions I will give to the poor, and if I have defrauded anyone of anything, I will give back four times as much." ⁽⁹⁾And Jesus said to him, "Today salvation has come to this house, because he, too, is a son of Abraham. ⁽¹⁰⁾For the Son of Man has come to seek and to save that which was lost." (Luke 19:1-10)

In Jesus' ministry, the triumph of Zaccheus is one of the most wonderful things, not only for him but for us as well. It is a great example of victory in faith. Zaccheus was a chief tax collector who probably cheated the poor in order to become rich. He was a bad man with a terrible job, a true enemy of the Jews. His whole life centered on sin, but right after he met Jesus he became a Christian and everything in his life changed. What happened? How did salvation come to such a sinner?

The Bible tells us that Zaccheus wanted to meet Jesus Christ, "Zaccheus was trying to see who Jesus was" (v. 3). He most likely heard about Jesus and His powerful ministry through the people with whom he did business. They told him the stories about how Jesus made demon-possessed people normal, healed the cripple and sick, and many other wonderful miracles. When the crowds heard that Jesus was coming to Jerusalem, they took branches from the palm trees to welcome Him and started shouting, "Hosanna! Blessed is He who comes in the name of the Lord, even the King of Israel" (Jn. 12:13). Zaccheus got excited about this news because his interest in Jesus was real. He sincerely wanted to meet Him, and followed the crowd to Jesus.

Many people say that they want to meet Jesus, but most are not willing to overcome the obstacles in their way. Zaccheus was a short man, so he could not see over the crowds. He had a lot of trouble trying to find a place to see Jesus, but he did not give up. He ran ahead of the crowds and climbed a sycamore tree in order to see Him, "for He was about to pass through that way" (v. 4). After hearing about Jesus, a woman who had hemorrhaged for twelve years, "and had endured much at the hands of many physicians, and had spent all that she had and was not helped at all, but rather had grown worse," came up in the crowd behind Him and touched His cloak (Mk. 5:25-27). This woman really wanted to see Jesus, like Zaccheus, and the minute she touched His cloak, He healed her. A blind beggar named Bartimaeus was sitting by the road as Jesus passed by. He started crying out, "Jesus, Son of David, have mercy on me!" The people in the crowd were yelling at him to be quiet, "but he kept crying out all the more, 'Son of David, have mercy on me'" (Mk. 10:48)! Like Zaccheus, he overcame his troubles in order to get to Jesus, and Jesus gave him sight.

As Jesus passed under the sycamore tree, He looked up and said to Zaccheus, "Zaccheus hurry and come down, for today I must stay at your house" (v. 5). Zaccheus heard Jesus' call and responded immediately, "And he hurried and came down and received Him

gladly" (v. 6). He did not hesitate when Jesus called his name. Perhaps he was a bit embarrassed or shy as everyone looked at him come to Jesus, but he still came. Hebrews 3:7&8 states, "Therefore, just as the Holy Spirit says, 'Today if you hear His voice, do not harden your hearts as when they provoked Me, as in the day of trial in the wilderness.'" The Israelites of old always hesitated and challenged God's authority over them by their rebellion in the wilderness. When God called Abraham to offer up his only son, he listened right away. He did not grumble and complain about God's decision. He did not ask why, he just did it; "So Abraham rose early in the morning and saddled his donkey, and took two of his young men with him and Isaac his son; and he split wood for the burnt offering, and arose and went to the place of which God had told him" (Gn. 22:3). If God asked you to sacrifice your firstborn, would you delay in responding? Abraham immediately started moving God's way, just like Zaccheus.

As Zaccheus went to his home with Jesus, something happened; his life changed. He told Jesus, "Behold, Lord, half of my possessions I will give to the poor, and if I have defrauded anyone of anything, I will give back four times as much" (v. 8). Now his eyes are spiritually open, and he can see what he did wrong. He can repent! He confessed to the Lord in public. He accepted Jesus as his Savior and confessed his sin publicly. Before coming to Jesus, he "Walked according to the course of this world, according to the prince of the power of the air, of the spirit that is now working in the sons of disobedience" (Eph. 2:2). After coming to Jesus, he changed. Jesus said to him, "Today salvation has come to this house, because he, too, is a son of Abraham. For the Son of Man has come to seek and to save that which was lost" (vv. 9&10).

My dear friends, if you want to meet Jesus Christ and invite Him into your life, then you too will have to overcome the devil's obstacles. If you hear His voice calling, and you respond immediately, repenting of your sin and confessing His Lordship, you will change, "Therefore if any man is in Christ, he is a new creature; the old things passed away; behold, new things have come" (2 Cor. 5:17). Zaccheus turned from sin to God, "Repent and return, that your sins may be wiped away, in order that times of refreshing may come from the presence of the Lord" (Acts. 3:19). Amen. 1 John 1:9 says, "If we confess our sins, He is faithful and righteous to forgive us our sins and to cleanse us from all unrighteousness." Listen carefully, "Believe in the Lord Jesus, and you shall be saved, you and your household" (Acts. 16:31). 

다음 주일 설교

삭개오의 승리

“예수께서 여기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셨사오며 만일 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사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9:1~10)



김성관 목사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삭개오의 승리는 그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참으로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것은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자의 좋은 본보기입니다.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아마도 부자가 되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속이고 갈취했을 것입니다. 그는 유대인들의 적이었고 나쁜 짓을 일삼는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온통 죄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 삭개오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의 모든 삶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떻게 이런 죄인에게 구원이 임했던 것일까요?

마음의 소원

성경은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했다고 말합니다. “자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3절). 그는 자신이 거대한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과 그분의 놀라운 사역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귀신들린 자들과 저는 자, 병든 자들을 고치신 것과 또 그밖의 여러 가지 기적들에 대해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삭개오를 만난 뒤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들은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요 12:13). 삭개오는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듣고 너무나 흥분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그의 관심은 진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진심으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따라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장애의 극복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도중에 있는 장애물을 극복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았기 때문에 사람들 틈에 끼어서 아무 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잘 볼 수 있는 곳을 찾느라 애를 먹었습니다. 그렇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앞질러 달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라”(4절). 열두 해 동안 혈투증을 앓던 한 여인은 “많은 의원에게 많은 피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가서 주님의 옷에 손을 댔습니다(막 5:25-27). 이 여인도 삭개오처럼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옷을 만진 순간 주님은 그 여인을 치료하셨습니다. 소경 저지 바디매오는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길 가에 앉아서 있었습니다. 그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습니다.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신지라”(막 10:48)! 바디매오는 삭개오가 그랬듯이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고 주님은 그의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즉각적인 응답

예수님은 뽕나무 밑을 지나가면서 위를 올려다보고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5절). 삭개오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즉시 반응했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6절). 그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셨을 때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보자 조금 당황하고 부끄러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히브리어 3:7,8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냇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박케 하지 말라” 그들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늘 머뭇거리고 반항하며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독자를 바치라고 명하셨을 때 그는 즉시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 투덜거리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유를 묻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말씀대로 했을 뿐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반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라”(창 22:3).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장자를 바치라고 하신다면 여러분은 즉각적으로 응답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삭개오가 그랬듯이 즉시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죄의 회개

삭개오가 예수님과 함께 집에 갔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의 인생이 바뀐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셨사오며 만일 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사배나 갚겠나이다”(8절). 영안이 열리자 삭개오는 자신이 행했던 악한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회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님께 죄를 고백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고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오기 전까지 그는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손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엢 2:2). 예수님께 나온 후 그는 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9,10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신의 삶 속에서 주님을 초대하고 싶다면 우리는 사단의 방해를 극복해야만 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들을 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주되심을 고백하면서 이에 즉시 반응하면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아닌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고후 5:17). 삭개오는 죄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윤택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행 3:19). 아멘. 요한일서 1:9은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다음의 말씀을 심령에 깊이 새기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행 16:31).

수요 1부 예배 메시지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 (히 3:7~11)

주님은 초대교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라”(히 3:7). 이들은 구약을 잘 아는 사람들이며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럼에도 이들은 주님의 음성에 대해서 자신의 조상들처럼 행하였다. 이들을 향해 주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면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박케 하지 말라”(히 3:8).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였다(히 3:9).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하였다(히 3:10, 11).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유대인들도 주님의 말씀과 경고를 들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미 부패해 있었기에 들지 않았다. 그렇다면 우리의 심령은 어떠한가? “만물보다 거저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렐 17:9). 주님의 음성에 대한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있는가? 주님은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자비의 음성이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은 자비의 음성이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요 3:17).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의 안락한 삶과 도덕적인 삶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 따라서 진실한 회개를 통한 보혈의 은총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거룩함을 소유할 수 있다. 그럼에도 우리의 신앙은 저주를 향해 달려가고 있지 않은가? 성경은 성령이 임하신 이유에 대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다(눅 4:18, 19).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마 11:28).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참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품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요 10:10). 이 예수님의 음성은 율법에 능한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마 7:29). 이것은 마음이 부패하여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향한 자비의 음성이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다

자비의 음성을 들려주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구주이시다. 이처럼 오직 예수님만이 은혜를 주신다.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는 구원이며 영생이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으나 천하 만민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행 4:12). 이 세상은 절대로 영원한 안식을 주지 못한다. 오직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요 6:33). 말씀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꿰뚫어 보시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히 4:12).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내려졌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롬 1:16).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대답이 된다. 우리의 앞은 지식과 경험은 오히려 복음을 회개케 할 뿐이다. 우리가 심령에 새겨야 할 유일한 진리는 오직 예수님이만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다.

충고의 음성을 그때마다 주신다

죄인들을 향한 자비의 음성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과 영생의 길을 열어 주셨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주님이 때마다 주시는 충고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이 많지 않다. “나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잠 27:1).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는 고집을 부리지 말고 순종해야 한다(히 3:7, 8). 우리는 곧 사라질 안에 불과하기 때문이다(약 4:14). 우리의 본분은 무엇인가? “일의 결과를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전 12:13).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임을 믿어야 한다(잠 9:1). 그리스도 안에 모든 대답이 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길을 열어 주셨다. 이처럼 우리를 향한 은총은 분명히 실존한다. 동시에 심판도 실존한다(잠 29:1).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음성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다. 우리가 믿지 않을 때 우리는 자욕으로 간다(히 3:19).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전하는 충고의 음성에 반드시 순종해야 한다.

우리에게는 책임이 있다. 무슨 책임인가? 바로 “믿음”이다. 우리의 의, 행위, 공로, 율리가 아니다. 우리에게는 하늘로서 오셨으며 모든 만물 위에 계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할 책임이 있다(요 3:31). 이를 위해서 주님은 자비의 음성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구원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주셨으며 때마다 우리에게 충고하신다. 이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나는 죄인입니다!”이다. 무엇 때문에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는가? 우리가 십자가를 흐리기 때문이 아닌가? 전제신(32.33%), 여호수아(수 23.24장), 바울(행 20장), 예수님(요13-17장)이 한결같이 전하는 말씀은 무엇인가? 우리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속하였음을 가르치고 있지 않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은총이다. 이와 같은 은총을 행하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책임은 믿음이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시고 주와 함께 다스리라”(찬 544장). 우리는 진실로 은총의 복음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오직 은총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하소서. 나에게 십자가의 흔적이만 있게 하소서. 아멘.

십자가로 거듭난 기도의 어머니들이여! 복음으로 굳게 서라!

2006년 권사회 수련회

주 제 : 참 복음! 참 자유! (갈 5:1) 일 시 : 5월 29일(월) ~ 30일(화) 장 소 : 갈릴릴

성령으로 충만하였던 초대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초점이 있었습니(대(행 10:36). 특히 초대 교회는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행 6:4)에 전념하도록 돕기 위해서 교회 안에 여러 직분들을 두었는데 권사의 직분도 이에 근거하고 있습니다(행 4:11,12). 권사직은 여자로서 안수례를 받지 않은 한촌지이며 복음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24시간 연속기도회를 통해서 교회의 영적인 기초를 든든히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구교와 부서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과 교회의 굵은 일을 도맡아 하시며 권사라는 감투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일꾼으로서의 일들을 충성되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의 모습과도 전혀 다르게 “오직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권사님들의 모습은 이들을 더욱 복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있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도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빌 4:2).

그러므로 진심으로 회개하며 매일 매순간 십자가 양로로 더 가까이 가기를 소망하는 금번 권사회 수련회를 통한 성령의 역사가 기대됩니다. 특별히 이번 수련회는 오직 말씀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이 특색입니다. 복음의 진수가 담겨있는 갈라디아서의 전장을 총 9시간에 걸쳐 배우며 다른 복음이 아닌 십자가의 참복을 안에서 참자유를 누리는 신자의 삶, 권사의 삶을 세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수련회처럼 편안히 쉬고 즐

겁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자신을 십자가 앞에 쳐 복종시킬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참 평안을 누리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악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대담한 자의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고후 13:4).

특히 어제(20일)부터 시작된 시무 권사 교육은 그동안 개인적인 사정으로 시무권사로서의 소임을 다하지 못한 분들(개별적으로 연락)을 위해서 마련된 영성훈련의 시간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것부터 시작하여 교회, 권사의 경건과 섬김, 교회 방향 및 비전까지 매우 토요일마다 총 8주 간의 교리와정을 통해서 그동안 나타내었던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며 새로운 거듭나는 은총의 리치가 될 것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돌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 된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엡 2:16). 이처럼 2006년 권사회 수련회를 비롯한 시무 권사 교육을 통해서 모든 권사님들이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은총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의 종인과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마 6:9) 기도의 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의 뜨거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행 20:21).



나의 관심은 오직 '나' 뿐이었다

충동원 전도주일을 한달 여 앞둔 상태에서 태신자를 걱정하였다. 기쁜 마음과 설레는 마음으로 태신자를 향한 사람을 허락하였음에 감사했다. 그런데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면서 충동원 전도주일이 점점 부담으로 느껴지기 시작했다. '왜 하필이면 이렇게 바쁜 때에 충동원 주간이 겹쳤을까?' 원망하고 불평하였고, '그동안 썩쩍도 않던 내 친구가 과연 나와 जुळ까?' 하는 의심뿐이었다. 영혼에 대한 사랑 이라곤 찾아 볼 수 없는 내 모습이 내가 보기에조차 참 미련하여 답답하기만 했다. 사단의 노예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분은 오직 예수님이라고 담당하게 전하리라 다짐했던 마음은 변질되어 갔다. '어떻게 설득시켜 볼까? 하루만 시간 내 달라고 사정을 해 볼까?' 어떻게든 나의 우둔한 혀와 미련한 지혜로 친구의 마음을 사로잡고 싶었다.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도록 돕는 데에 애쓰는 마음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감과 안일함으로 임했던 것이다. 당연히 기쁜 마음으로 증거하지 못하는 나를 통해 내 친구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전해질 수 없었다.

정말로 한 영혼을 위한 충동원 전도주일을 준비하면서도 나의 관심은 오직 '나' 뿐이었다. '내가 나를 사랑함이 속아나는 생황같이 흘러 넘쳐 감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고도 남을 만큼 넉넉한데... 넌 왜 가두어 두기만 하나...'라고 예수님은 나의 마음을 혼드셨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께 게으르고 악한 종의 모습만 보여드린 것이 민망하고 부끄러웠다. 회개할 수밖에 없었다. 충동원 전도 주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또 다시 나를 깨뜨리셨다. 이제는 세상 일 하듯 나의 의지와 결단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이 주체할 수 없이 넘쳐나서, 어두움이 빛을 감출 수 없듯이 내 입술이, 내 발걸음이, 내 일상의 삶이 온전히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데 힘이 없기를 소망한다.

김미경(청년1부)

전도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



전도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도하는 것을 좋아 하신대요. 이것이 제가 전도를 하는 이유인 것 같아요. 저는 유치부 때 전도를 해봤어요. 저의 유치원 단짝이었던 솔이예요. 전 그에게 교회에 따라간다고 해서 기분이 정말 좋았어요. 그때 예수님은 저보다 더 기뻐하셨죠! 저는 더욱 전도를 많이 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면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으니까요. "예수님!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그림/ 이다현, 글/ 고영은(유년부)

한 영혼을 살리는 겨자씨 믿음

나에게는 고 1때부터 품어 왔지만 아직 열매 맺지 못한 영혼이 있다. "마음이 움직이려면 길게." 친구의 마음은 언제쯤 움직일까? 이런 생각 끝에 그동안 열매 하나 맺지 못한 내 삶이 부끄러워졌다.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예수님께서는 왜 내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거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즈음 5월 20일 대학부 'COMB'(충동원 전도 집회)를 위한 기도가 시작됐다. 더 이상 안 되겠다 는 생각에 그 친구를 위해 결단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굳게 마음을 먹었다. 그때 불현듯 떠오른 생각에 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다. '내가 복음의 능력을 얼마나 믿고 예수님을 전했었나? 나 스스로도 의심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 오지는 않았나?' 주님께서는 내가 가졌던 의문에 확실한 대답을 해주신 것이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었다. 과연 내가 전하는 몇 마디 말로 한 영혼이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복음을 증거하면서 마음 속에 늘 지워지지 않고 있었던 불신의 씨앗이 한 영혼을 살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전도는 가장 미련한 방법이다. 하지만 나는 주님께서 이 미련한 것을 통해 한 영혼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결국 나에게 있어서 전도는 미련한 방법일 뿐이었던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일이 그렇지만 전도는 주님께서 일하시지 않으면 결단코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 따라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 나의 일이다. 나는 부족해서 몇 마디 어눌하게 복음을 전할 뿐이다. 하지만 그 몇 마디 복음 속에 십자가의 능력이 역사하시면 한 영혼이 변화될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 이 믿음이 필요한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한탄하시듯 말씀하셨다. '이 땅에서 믿음을 찾아보겠느냐고...' 이제서야 나는 이 믿음이 나에게 가진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다. 믿음이 없이는 정말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렇다면 과연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은 얼마나 될까? 그것이 겨자씨만하다는 사실에 또 다시 부끄러워진다.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을 원하시는 걸까? 이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씨앗 안에 그 어떤 나무보다 크게 자라게 하는 무한한 능력이 살아있기 때문이다. 내 자신이 겨자씨 한 알만큼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온전히 성령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기도할 때 주님의 크신 역사는 일어난다. 겨자씨만한 믿음! 이 믿음이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았다.

김희진(전대부)

우줄대지 않게 하옵소서!

난생 처음으로 고향후배를 전도하였습다. 그는 천주교 신자였는데 전도하기에 무척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간신히 설득하여 교회등록 약속을 받았지만 약속을 안 지킬까 불안하였습다. 그러나 그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며 간구하였을 때 주님은 그를 교회로 인도하셨습다. 저는 정말 기뻐했습니다. 저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동네분들을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끈질기게 설득했지만 아무 효과도 없었습니다. 전도도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깨닫고 저들의 완악한 마음을 움직여 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였습다. 몇 주가 되었을지? 주님은 그들도 교회로 인도하셨습다. 정말 기뻐지만 저는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이 일로 인해서 우쭐대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마치 내 노력으로 된 양 자랑하지 않게 하옵소서."

전도를 향한 주님의 열심은 저로 하여금 교회주변전도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가차없이 방문하여 복음을 전하였지만 굳게 닫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다. 혹 열리더라도 불조야 타고인하였습다. 접근이 쉽지 않은 가운데 그래도 음식점은 조금 나왔습다. 한 집을 정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꾸준히 접촉을 하였습다. 교회에 나가겠다고 승낙을 받아내는데 수개월이 걸렸습다. 식당 주인과 아들이 함께 교회에 등록하기로 약속하였는데 그들의 마음이 바뀔까 봐 마음 졸이며 기도하며 주일을 기다렸습다. 그런데 이들이 주일에는 못 나오고 수요일만 나올 수 있다하여 새신자 등록을 1년 이상 미루게 되었습다. 그러다가 결국 식당이 이사하게 되었습다. 그들을 만날수 없었고 이제 더 이상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주님! 수요일이라도 가리지 말고 교회로 인도하지 못했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주님이 불쌍히 주지 않으시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 자신을 부인하게 하시고 주님이 쓰시기에 불편함이 없는 그릇으로 항상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김종민(집사, 13교구)



교회 탐방 새가족양육부

예수님이 정말로 좋습니다!

교회에 등록한 새가족은 새가족 등록부를 거쳐 새가족 양육부(베다니움)에서 복음에 대해서 배우고 깨닫게 됩니다. 우선, 원래 교회에 다니 새가족은 한 주간의 교육 후에 곧바로 교구에 편입이 됩니다. 반면에 처음으로 교회에 나온 새가족은 6개월간의 교육, 즉 24회의 교육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은 신자만이 수로 하고 이후에 교구로 편입됩니다. 이처럼 현재 새가족 양육부에서 복음을 깨달으며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새가족들이 객박하는 감사와 은혜를 돌아 봅니다.

교회에 나오게 된 계기는?

성막 레슨을 받고 있는데, 저를 지도하시는 선생님의 인도로 친구들과 함께 교회에 나왔습니다. (김지원, 47개월)

어머니의 전도가 있었습니디. 지금 돌이켜 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인도였습니디. (김정자, 47개월)

종교개혁과 관련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운영되는 중헌 복지관을 소망하여 자발적으로 나왔습니디. (이정자, 57개월)

교회에 나오면서 달라진 것은?

일단 복음에 대해서 확신이 깨닫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음행을 전교에서 전하지 않음이 정말 좋습니디. (조영은, 67개월)

2003년 교회에 나왔지만, 방황하다가 다시 나왔습니디. 사실 모든 상행이 힘들어서 주님을 다시 찾았는데 예수님은 저에게 참 기쁨과 평안을 주셨습니디. (서희영, 57개월)

약 2년 동안 안구질환으로 매일 고통스러운 날을 보냈습니디. 불치병이었다니 나왔고 살아갈 소망이 없었습니디. 그런데 정말로 놀랍게도 교회에 나온 뒤로부터 병이 나아습니디. 정말로 믿을 수 없는 일이 저에게 일어났습니디. (현선숙, 37개월)

저에게는 오직 "기사의 고백만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은 진실로 깨달을 수 있었습니디. (조재만, 67개월)

양육을 받으면서 느리는 은혜는?

매마다 전포되는 말씀과 분반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기쁘습니디. (이성자, 27개월)

모든 성경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있음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디. (김진홍, 37개월)

저희 반 선생님께서 보내주시는 말씀 문자메시지는 저에게 말씀의 소중함과 은혜를 깨닫게 하습니디. 보잘것없는 저를 향한 관심과 사랑에 그저 감사할 따름습니디. (김선도, 67개월)

처음에는 신실함의 인도로 따라서 나왔을 뿐이었습니디. 지금은 복음에 대해서 조금씩 깨닫아가는 것 같습니디. (조재원, 67개월)

저는 전조교에서 개종하였습니디. 처음에는 아색하고 낯선 것이 많았습니디. 지금은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특히 모태미안인 남편(이정진, 47개월)과 함께 복음을 접하게 된 것이 감사합니다. (조현경, 47개월)

새가족 양육부를 섬기면서?

항상 고마워 하지 않습니디? 자신을 살펴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맡기신 새가족들을 볼 때마다 오리라 제게 큰 은혜와 기쁨이 있습니다. (백영희 교사, 47개월)

양육부 교사를 하기 전에는 저의 신앙이 많이 나태했습니디. 그러나

교사로 섬기면서 주님은 매우 큰 은혜를 저에게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얼마 전에 도박에 빠져 있던 저의 반 새가족이 도박을 끊었다는 말을 듣고 힐 듯이 기뻐습니디. (최동성 교사, 은유반)

매주 오시는 새가족들을 만나면서 저의 내적인 신앙을 돌아보며 참 많이 회개했습니디. 제 자신이 먼저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진 신자가 되기 위해서 더욱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였습니디. 물론 새가족들을 위한 기도도 쉬지 않을 것입니디. (자신조 장로, 부장)

주 안에서 새로운 삶을 경험하면서?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죄를 고쳐주신 예수님을 전하습니디. 먼저 우리 가족과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습니디. (박선숙, 37개월)

저의 노력과 열심으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디. 오직 예수님이 이끄시어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살갑습니디. (김선도, 57개월)

정말로 말씀이 좋습니디. 특히 다른 강단에서는 들을 수 없는 십자가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습니디. (조재만, 67개월)

제가 깨달은 십자가의 복음이 중헌 복지관 학생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습니디. (이정자, 57개월)

이전에 없었던 평안이 생겼습니디. 이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을 전하습니디. (김덕자, 47개월)

인류의 내 새가족들은 한결같이 밝은 미소를 머금고 있었습니디. 이것을 볼 때 자신을 인도하신 분이 대해서 아직은 정확히 표현하지 못하였지만 이들 안에 계시는 분은 분명 예수님이셨습니디. 그래서 이들은 말할 때에 예수님과 그분의 은혜 그리고 사랑을 증거하였습니디. 이 분들만이 아니라 모든 새가족들이 양육과 교정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일로이 되게까지 기도하였습니디. "나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디..." (갈 6:14).

(범일실)

내 영혼이 쭉쭉 할양



한 429장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내 마음은 언제나 찬양으로 가득 차 있다. 삶의 행편이 어떠하든지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총이다. 때에 맞는 찬송이 한결 한결 마음과 입술을 열어 찬송을 시작하면 어느새 경배와 찬양, 사랑의 감정이 어우러져 감사함으로 찬송을 하게 되니 커다란 기쁨이 아닐 수 없다. 그 중에서도 큰 은혜와 감동 속에서 부른 찬송이 429장이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분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바루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니 한 걸음씩을 인도하소서' 한 번은 몸이 아파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께서는 이 찬송을 계속 부르게 하였고 찬송을 통하여 내 영혼을 치유하며 평안하게 하였고 근심 중에 씨름하던 날 건져 주셨다.

"이전에 방랑하며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다 기어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특히 나는 이 부분을 통해서 나의 안에 가득한 죄를 볼 수 있었다. 그래서 나는 회개할 수밖에 없었고, 십자가의 사랑이 나의 마음에 깊이 각인하였다. 또한 찬송해야 한다는 사명을 깊이 깨닫게 되었다. 이 찬송은 나로 하여금 이 땅의 것이 아닌 천국만을 소망하게 하였다. 세상적인 유혹들로 인해서 내 영혼이 사들지 않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나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찬송한다.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항상영원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김미자(집사, 할렐루야 찬양단)

♡ 새 · 가 · 족 · 을 · 원 · 영 · 함 · 니 · 다 ♡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연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연도자
1465	서정일	1 청년2부		1492	최철미	19 외선부	문현숙(12)
1466	홍백용	13 청년1부	이미숙(16)	1493	이동현	9 청년1부	황승용(1)
1467	김제호	19 대학부	이명애(4)	1494	김성민	9 고등부	백영숙(13)
1468	맹성영	19 청년1부	최재경(16)	1495	김영구	19 대학부	백재숙(15)
1469	윤종근	5 소망부	박광희(5)	1496	내세프르디	19 외선부	
1470	이상구	17 청년1부	김연희(17)	1497	최지아리	19 외선부	
1471	전귀자	4 청년1부	신동환(4)	1498	구원희(6)	19 외선부	구영석(6)
1472	박영호	10 청년1부	윤부자(16)	1499	김경선	9 청년2부	전순희(2)
1473	이승훈	19 대학부	김정숙(9)	1500	안도레베라	19 외선부	김정현(11)
1474	고영숙	10 청년1부	송은자(16)	1501	세우자	19 외선부	나영실(2)
1475	박희원	17 청년2부	김홍조(1)	1502	순은숙	19 청년1부	오남규(1)
1476	권주형	19 청년1부	김정희(17)	1503	이은혜	19 고등부	이달순(12)
1477	조진근	9 고등부	김정희(17)	1504	김현자	14 청년1부	이춘영(13)
1478	이송희	13 청년1부	문경희(10)	1505	하성삼	14 청년2부	이춘영(13)
1479	이종현	19 대학부	국현자(16)	1506	유지현	14 청년1부	이춘영(13)
1480	이기진	6 청년1부	최미자(7)	1507	김미자	17 청년1부	김미자(17)
1481	문정희	12 청년1부	이아영(2)	1508	신계숙	13 청년1부	장태숙(9)
1482	최희영	13 청년2부	김유자(3)	1509	이승근	19 청년1부	이혜경(2)
1483	류현정	9 고등부	전은희(1)	1510	황태호	19 외선부	김정숙(16)
1484	김혜수	19 청년1부	한경숙(9)	1511	마시야로지	19 외선부	조영숙(16)
1485	바타	19 외선부	정성자(13)	1512	나수영	19 외선부	홍광일(13)
1486	류대	19 외선부	홍성애(15)	1513	황정희	12 청년2부	김종숙(7)
1487	윤기	19 외선부	홍성애(15)	1514	서영도	19 청년1부	황성삼(10)
1488	노정숙	11 청년1부	송광자(1)	1515	오경애	19 고등부	안세진(15)
1489	이송희	19 청년1부	신동자(14)	1516	김정희	19 청년1부	김영준(2)
1490	안승하	13 청년1부	신혜숙(4)	1517	김민희	19 대학부	이우희(6)
1491	한형삼	9 고등부	신현자(13)	1518	오다현	19 외선부	유정진(7)

교 회 소 식

모임

1. 권사회 3,4지회 월례회
일시: 24(월) 1부 예배 후
장소: 갈릴리움

별세

1. 장근성 타교성도(경인성 성도의 부친, 김양숙 성도의 사부, 6교구 우성1구역) / 12일 별세, 15일 장례
2. 이순복 타교성도(최순자 집사의 모친, 최윤용 집사의 장모, 13교구 상동구역) / 15일 별세, 17일 장례
3. 백경자 성도(교인회 성도의 모친, 장은석 성도의 장모, 16교구 안산5구역) / 15일 별세, 17일 장례

결혼

1. 나영환 군(나홍식 성도의 아들, 산반포교회)과 이신영 양(이영국 성도, 이미주 집사의 딸, 4교구) / 27일(토) 13:00 산반포교회 지하 3층 봉당
2. 이대현 군(경주부 씨의 아들, 19교구)과 김성신 양(김충용 성도, 손미혜 성도의 딸, 18교구) / 27일(토) 16:00 한국과학 기술회관 대禮廳

◆ 스마방 총동원 전도 집회

일시: 5월 21(일) 12:15~13:30
장소: 갈릴리움

대 상: 70세 이상 남녀 성도

◆ 장년부 총동원 전도 집회

일시: 5월 21(일) 12:30~14:00

장 소: 제1교육관 507호

◆ 산반방 교육관련 종강예배 및 수료식

교사양성부, 수료성경강부: 5월 28(일)다움주일 15:40, 제1교육관 307호
친양대원양성부: 5월 28(일)다움주일 15:45, 배다나홀

◆ 안수집사 부부안수예배

일시: 5월 7(주일)~6월 25(주일) 15:15~16:20 장 소: 제1교육관 407호

◆ 주일 예배 및 금요집회 주자안내

원활한 주자 관리를 위해서 차관 안내부의 지시에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출석지장로: 안수집사: 제1교육관 지하3·4층
- 일반 성도: 차관안내부의 지시에 따라 주자

교회 직역 모집

- | | |
|---------|--|
| 1.모집 부문 | 경비직 |
| 2.지 역 | 세례 교인 |
| 3.제출 서류 | 자필 이력서·주민등록 등본·당회장 추천서(타교인) |
| 4.서류제출처 | 강남구 역삼동 665-1(사우루) ☎ 552-6200 (내선 403) |

이번 주 새벽기도회 담당

	22(월)	23(화)	24(수)	25(목)	26(금)	27(토)	28(주일)
설교자/지도자	김성관/이형수	안창덕/김명석	나광영/이창희	정진호/전성욱	김용덕/윤민희	고광환/홍순애	조규호/김연식

예배담당 안내 (5/24~5/28)

날짜	예배	찬 양	사 회 기 도	설 교
5/24 수요일	I	곤한 데 영혼 쉼을 쉼 곳과 (호산나 찬양대)	홍수일	평영석
5/24 수요일	II	아바지여 이 죄인들 (설교안 찬양대)	김재석	홍복기
5/26 금요일	III	물론 노은영 / 소프라노 전수현 / 여교역자 찬양대	안진원	김성관 목사
5/28 주일 I	(예배 전 찬양)	이정훈	차신석	삭개오의 승리 (눅 19:1-10) 김태석 목사
5/28 주일 II	나 행한 것으로 외 / 피아노 트리오(임마누엘 오케스트라)	김준희	김의철	삭개오의 승리 (눅 19:1-10) 양재용 목사
5/28 주일 III	오 거룩하신 주님 외 / 바이올린 임지희(예반 오케스트라)	여국근	전은배	삭개오의 승리 (눅 19:1-10) 김성관 목사
5/28 주일 IV	오 거룩하신 주님 외 / 바이올린 임지희(예반 오케스트라)	이희진	이계인	삭개오의 승리 (눅 19:1-10) 정종신 목사
5/28 주일 V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 외 / 고등부 찬양대(제2교구)	임현덕	김구영	삭개오의 승리 (눅 19:1-10) 이성진 목사
5/28 주일찬양	할렐루야 흥성찬양대 / 설교안 찬양대	이재영	윤상철	두 종류의 근심 (고후 7:9-10) 김성관 목사

예배 및 집회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오전 7:00	본 당
	II 오전 9:00	본 당
	III 오전 11:00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본 당
	IV 오후 1:00(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본 당
	V 오후 3:00 (젊은이가 드리는 예배)	본 당
찬양예배	오후 5:00	본 당
수요예배	I 오전 11:00 II 저녁 7:30	본 당
금요집회	저녁 7:30	본 당
새벽기도회	새벽 5:00	본 당

기도관 집회 안내

집회	시 간	차 량
회요집회	오전 11:00	오전 10:00 본당 앞 출발
금요찬양	저녁 11:00	금요찬양 후 본당 앞 출발

오전 11시에 드리는 주일 부 예배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및 수화, 오후 1시에 드리는 주일 IV부 예배는 소리 향하여, 중국어, 한국어, 러시아어, 힌디어, 인도네시아어 등으로 동시 통역합니다.

Simultaneous translations in English, Chinese, Japanese and Sign Language are available at the Eleven O'clock Worship Service, and Sri Lankan, Chinese, Mongolian, Russian, Hindi and Indonesian are also available at the One O'clock Worship Serv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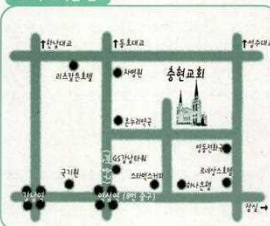
구 분	시 간	장 소
영 아 부	I 오전 9:00 II 오전 11:00	선교관 1층
유 아 부	오전 10:50	교육관 201호
유 지 부	오전 10:50	교육관 207호
유 년 부	오전 10:30	교육관 307호
초 등 부	오전 10:30	교육관 407호
소 년 부	오전 10:30	교육관 507호
중 등 1부	오전 9:00	교육관 301호
중 등 2부	오전 9:00	교육관 401호
중 등 3부	오전 9:00	교육관 501호
고 등 부	오전 11:00	제2교육관 4층
대 학 부	(토) 오후 2:00	제2교육관 4층
청 년 1부	(토) 오후 5:30	제2교육관 4층

구 분	시 간	장 소
청 년 2부	오후 12:15	제2교육관 2층
장 년 1부	오후 12:30	교육관 507호
장 년 2부	오후 12:30	교육관 407호
장 년 3부	오후 12:30	교육관 307호
소 망 부	오후 12:15	강 립 리 홀
사 랑 부	오전 11:00	복자관 지명1층
예배마루	오전 9:00(학생) 오후 1:00(성인)	제2교육관 1층
대 학 부	(화) 오전 8:30~9:30 (목) 저녁 7:00~7:30	교육관 110호
타 교 목 장	오후 12:15	배 다 나 홀
출원인원인집	주간교육	교육관 107호
정신장애인교육	주간교육	출원복지관
국내외국인선교부	오전 11:00	아 멘 홀

5월 총현 기도의 창

1. 위임목사님의 사역을 성령에게 통치하시므로 십자가 복음의 통로로만 사용하여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소서.
2. 총현의 모든 성도들이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부활의 은총을 전하게 하소서.
3. 2006년도 단기 선교와 모든 선교 훈련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행되며, 선교에 방관자가 없게 하소서.
4. 1·1 전도와 매월 둘째 주 수요일에 실시되는 교회주변 전도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소서.
5. 모든 위원회에 속한 기원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하나되게 하소서.
6. 모든 새가족들이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믿음을 안에서 살게 하소서.
7. 5대 목표의 하나인 이웃 사랑의 실천으로 세워진 총현복지사업이 십자가 복음으로 운영되게 하소서.
8. 교회에 속한 재단(유지·통산·복지)을 십자가의 은혜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 하소서.

교회 오피는 길



심 · 기 · 는 · 본 · 들

■ 위임목사 김성관

■ 시무장로

- | | | | | |
|-----|-----|-----|-----|-----|
| 김희철 | 김호은 | 노광현 | 이병학 | 이 훈 |
| 남상우 | 김종구 | 최무길 | 이창호 | 차신석 |
| 김광남 | 이승희 | 임무현 | 전종용 | 전종철 |
| 이정우 | 김단용 | 한송규 | 김영수 | 김환기 |
| 원용철 | 이형수 | 안동현 | 황민기 | 김구영 |
| 최윤덕 | 이계인 | 박덕양 | 이태식 | 정태두 |
| 박종구 | 권명석 | 조종환 | 배승식 | 김영달 |
| 이철호 | 최지훈 | 노영환 | 박철규 | 정창길 |
| 신상수 | 고재승 | 강형철 | 김영은 | 이달용 |
| 장철환 | 김순조 | 함현규 | 윤석진 | 전선원 |
| 안석현 | 김진근 | 김정국 | 김종선 | 임창식 |
| 김은철 | 전희태 | 김신국 | 전계식 | 김형곤 |
| 장송규 | 전은배 | 석영식 | 구재환 | 송두영 |
| 최자용 | 신진길 | 유상대 | 박상준 | 김규식 |
| 신광철 | 김영민 | 김영민 | 김영민 | 김영민 |

■ 부목사

- | | | | | |
|-----|-----|-----|-----|-----|
| 이재대 | 정현민 | 박인기 | 류병희 | 김영훈 |
| 여국근 | 안창덕 | 나광영 | 정진호 | 김용덕 |
| 고광환 | 위광준 | 김익환 | 장 종 | 임현덕 |
| 이희식 | 최종철 | 하종철 | 안진원 | 정종신 |
| 양재용 | 이성진 | 조규호 | 최성규 | 이계영 |
| 이정훈 | 이형수 | 김준희 | 윤수일 | 황진석 |
| 이정훈 | 김태석 | 김성훈 | 김성훈 | 김성훈 |
- 여전도사
- | | | | | |
|------|------|-----|-----|-----|
| 신복자 | 윤순옥 | 한영순 | 김연식 | 홍순애 |
| 이숙주 | 김갑자 | 안태순 | 김영연 | 강덕필 |
| 최복선 | 전선호 | 김영선 | 김정자 | 김정희 |
| 이복순A | 류진희 | 한성일 | 임태두 | 강영미 |
| 유미자 | 이복순B | 장효숙 | 장효숙 | 장효숙 |
- 찬양감독 장영규
- 찬양지휘자 서순정 김원식
- 찬양대장 김소연
- 찬양연주자 장연희
- 전 교 사 송요한